



1.찬양 :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2.교독 :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섬김이 :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 족 :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섬김이 :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가 족 :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섬김이 :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자음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가 족 :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섬김이 :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인간이 되셨습니다.

가 족 :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 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섬김이 : 그분은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가 족 :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섬김이 :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가 족 :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다함께 :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3.더불어 함께하는 기도

1)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잘 대처하고, 피해당한 축산인들을 잘 돕고, 여러 번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2) 수능(11.14) / 김사랑(김성갑-황은경) 배준영(배경호-이정신) 김가영(김대현b-신남주) 김성은(김재일-송명희) 남은석(남기영-이남숙) 윤하늘(윤경호-허경란) 이소은(이상철-김은경b) 이지원(이창욱) 정다영(정광식-기은희) 최하영(최성준-우경란) 박주현(박경하-한성희) 이시현 정채훈 (이상14명)

3) 환우(신소윤, 윤용은, 박영춘 모친 등)을 지켜주소서. 4) 대표기도 :

4.공동체해석 / 읍 4-5장(5:1-27) / 나라면 하나님을 의탁하리라(반쪽 진리)

1) 본문을 읽으십시오.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7분)

2) 김지혜는 [선량한 차별주의]에서 “희망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차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을 곳곳에서 만난다.”라고 말한다. 우리 안에 있는 선량한 차별이 있다면 무엇인가? (20분)

3) 누군가 엘리바스처럼 당신이 당한 고난을 인과응보라고 말한다면 무엇이래 대답하겠는가? 엘리바스처럼 사람의 고난을 정의하는 것의 문제는 무엇인가? (20분)

4)

5.알림 : 주보를 참고하세요

1) 수요일모임 : 이사야9 - 다른 이사야

2) 금요기도회 : 소풍 아둘람 주관

3) 1부 예배 참석 : ◇10월 디딤돌 필 화요복사골

4) 섬김이 엠티 : 10.19(토) 오후 1:30부터 8:00 나들목

5) 종교개혁주간 밤 기도회 / 10.29(월)-11.1(금)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6) 새가족 엠티 : 10.26(토) 오전 10:00 인천대공원

8) 희망바자회 : 10.27(주)

9) 북토크 : 10.27(주) 오후 2:00 [거룩하지 않은 독서] ‘한가지 나무를 읽는 것보다 전체 숲을 읽는 성경읽기’
주성공 아둘람 주관

10) 임명총회 : 11.10(주) 예배후 514호 / 운영위원 추천 : 3명 / 11.1(금) 도착분까지

11) 다음모임 : 장소, 시간, 담당을 정하세요.

6. 헌금 :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7. 공동축도 :

섬김이 :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가 족 :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다함께 :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